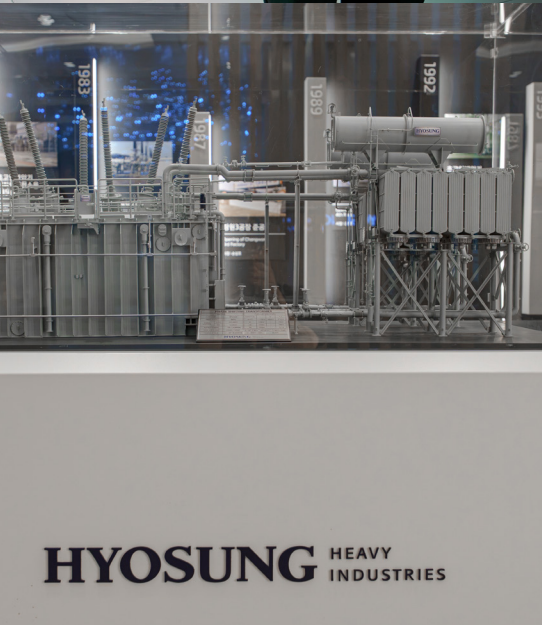




효성중공업으로 ————— 출근합니다.

국립창원대 졸업생 4인이 들려주는
취업 준비와 신입사원 첫걸음

국립창원대학교 졸업생 네 명이 효성중공업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기공학과 양승욱 씨와 탁민규 씨, 기계공학부 하승중 씨, 지능로봇융합공학과 변강민 씨다. 이들은 효성중공업 Insight Academy와 취업전략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직무를 이해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한 끝에 올해 취업에 성공했다. 아직 매뉴얼을 다시 읽고, 선배에게 질문하고, 공정과 설계를 하나씩 배워가는 신입사원. 하지만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막막했던 취업 준비, 학교 프로그램에서 얻은 도움, 최종 합격의 순간, 입사 후 달라진 하루까지 국립창원대 선배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꿈꾸던 전력 엔지니어의 첫 설계

양 승 욱

전기공학과 졸업 • 일반변압기설계팀

양승욱 씨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다. 자연스럽게 공학 계열을 꿈꿨고, 그중에서도 전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쓰일 분야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전기 엔지니어라는 목표가 생겼다. 현재 그는 효성중공업 일반변압기설계팀에서 변압기 본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 시절 그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동아리나 대외활동보다는 전공 공부에 집중했다. 특히 전기기기 수업은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을 키워준 계기였다. 전기 지식을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수업이었고, 훗날 변압기 설계 직무를 준비하는 데도 중요한 기반이 됐다. 실제 면접에서도 변압기 관련 전공 질문을 받았고, 전기기사 자격증과 전공 공부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자신감보다 막막함이 먼저였다. 4학년이 되어 동기들을 보며 자신의 스펙을 돌아봤고, 준비된 것이 학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되겠어?”라는 부정적인 마음에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때 효성중공업 Insight Academy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생할 중 발전소와 전력회사 견학을 통해 효성중공업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 입사하고 싶은 기



ENGINEER

나만의 무기를 들고 생산 현장에 서다

하 승 중

기계공학부 졸업 • 일반변압기제작팀 생산기술파트

하승중 씨는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입학하면서 창원국가산업단 인근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를 자연스럽게 갖게 됐다. 익숙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을 자주 뵈 수 있다는 점도 그에게는 중요한 이유였다. 현재 그는 효성중공업 일반변압기제작팀 생산기술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생산기술파트는 변압기 생산 공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생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일을 한다. 그는 안전 관리, 투자심의 등 여러 업무를 배우며 선배들에게 들은 내용과 업무 매뉴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꼼꼼히 정리하고 있다. 언젠가 다시 꺼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는 일이 신입사원인 그에게 중요한 공부라고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시절 하승중 씨는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학점, 영어 성적, 자격증은 성실함의 지표라고 생각했고,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위기 극복 경험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됐다. 그에게 취업 준비는 스펙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라,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다듬는 과정이었다.

업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현장 견학이었다. 교과서와 자격증 책에서 보던 변압기를 실제 공정 속에서 볼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견학 경험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었다. 취업전략센터의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컨설팅도 큰 도움이 됐다.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처음이었지만 모의면접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 특히 자신 없었던 말하기 실력을 보완할 수 있었다.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효도한 것 같아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던 취업전략센터 선생님들의 표정도 오래 기억에 남았다.

입사 후 그는 이론과 실전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은 기본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는 이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정과 조건이 존재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인턴이나 현장실습을 꼭 경험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했다.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야가 현장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양승욱 씨의 첫 번째 목표는 효성중공업 입사였다. 그의 다음 목표는 변압기 설계부서에서 인정받는 사원이 되는 것.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일을 하나씩 배우며 성취감을 쌓아가고 싶다. 언젠가는 없어서는 안 될 전력 엔지니어로 성장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전력 인프라에 기여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효성중공업 Insight Academy는 그 무기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 기회였다. 현업 임직원의 강의를 통해 회사와 부서의 업무를 이해했고, 현장에서 불량이나 납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소통하고 해결하는지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웠다. 취업 전략센터의 면접 컨설팅도 큰 도움이 됐다. 모의면접에서 PT 발표를 하며 자신도 몰랐던 행동과 말버릇을 확인했고, 직무적 강점이 면접관에게 잘 보이도록 다듬는 법을 배웠다. 그는 창원국가산단이라는 인프라를 국립창원대의 최고 강점으로 꼽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현장실습과 인턴ships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Insight Academy는 취업 준비의 “치트키”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학교가 마련한 기회를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자신만의 무기로 만들라고.

입사 후 그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협업의 중요성이다. 대학에서는 혼자 공부를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하나의 공정이 완성된다. 생산 현장에서는 작은 개선 하나에도 설계, 품질, 생산, 안전 등 다양한 부서의 의견이 연결된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맡은 업무를 정확히 배우는 동시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 그의 목표는 현재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되어 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신입사원의 기록은 그렇게 오늘도 현장의 언어가 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현장으로, 노력은 방향을 만났다

탁민규

전기공학과 졸업 • 일반변압기제작팀

탁민규 씨에게 전력 분야는 어릴 때부터 가까운 세계였다. 아버지가 전력 분야에서 근무했고,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4학년이 되어 구체적인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 전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효성중공업에 입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현재는 일반변압기제작팀에서 몰드변압기의 제작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 시절 그는 도서관에서 매일 살다시피 한 학생이었다. 전공

공부에 집중했고, 프런티어 클럽 활동을 통해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경험도 쌓았다. 효성중공업 Insight Academy는 그 노력에 방향을 잡아주었다.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회사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열심히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자신의 강점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했다. 그는 프런티어 클럽과 Insight Academy를 통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1대1로 다듬으며 그 답을 찾아갔다. Insight Academy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공장 견학이었다. 실제 변압기 제품과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내부를 견학하며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고,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더 커졌다. 프로그램 경험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중요한 어필 요소가 됐다.

입사 후 탁민규 씨는 기본 교육을 마치고 조금씩 업무를 맡고 있다. 회사에서는 몰드변압기에 대한 추가 교육을 듣고, 맡은 일을 착실히 수행하려 노력 중이다.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며 자기 관리도 이어간다. 도서관에서 쌓아온 성실함은 이제 회사생활의 루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가 입사 후 가장 크게 느낀 대학과 기업의 차이는 ‘성과’다. 대학이 배움에 초점을 둔다면, 기업은 배운 것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내가 이 회사와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역시 이제는 배움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성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맡은 일을 정확히 익히고, 작은 공정 하나에도 책임감을 더하며, 언젠가는 한 파트를 온전히 맡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탁민규 씨가 그리는 다음 목표다.

불안이 많던 취준생, 변압기를 설계하다

변강민

지능로봇융합공학과 졸업 • 초고압변압기 탱크구조설계

변강민 씨는 지능로봇융합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효성중공업에서 초고압변압기 탱크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변압기 본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외함, 즉 탱크를 CAD로 설계하는 일이다. 입사 3개월 차인 그는 설계 업무 매뉴얼과 공정을 익히며

*

배움은 전공에서 시작됐고,
기회는 현장에서 이어졌다.
국립창원대와 효성중공업,
취업을 넘어 성장으로 연결하다.



CAD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전력 산업에 관심이 많았다. 전기는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고 운택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대학 진학 후 효성중공업이 전력 계통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꿈꾸던 일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다. 대학 시절 그는 전공 수업과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캡스톤 디자인이었다. 3년간 배운 과목을 실제로 적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프로젝트형 수업에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했던 경험은 현재 변압기 외함 설계 업무에 적응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그는 자신에게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막막했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일이 과장처럼 느껴져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드림캐치 사이트에서 효성중공업 Insight Academy를 발견했다. 관심 있던 전력 산업 기업의 프로그램인 데다 서류 면접 기회까지 있어 “무조건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카데미는 회사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그에게 효성중공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통로였다. 실제 제품과 공정을 배우며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공장 견학에서는 이론으로만 보던 변

압기의 거대한 규모에 감탄했다. 취업전략센터는 그의 불안을 도전으로 바꿔준 곳이었다. 주 2회씩 찾아가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았고, 인적성 캠프와 모의면접에도 참여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 격려가 참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사실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기지 않았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후배들에게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지원해보라”고 조언했다. 부족하다고 느껴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는 취업 준비는 그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입사 후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책임감’이었다. 학생 때는 일정이 늦어져도 자신의 성적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회사에서는 한 사람의 지연이 전체 업무와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 관리와 꼼꼼함의 중요성을 매일 배우고 있다. 변강민 씨의 첫 번째 목표는 주어진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해 선배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매뉴얼과 공정을 익히는 신입사원이지만, 앞으로는 변압기 외함 설계 업무에서 어떤 상황에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불안이 많은 취준생은 이제 현장에서 책임을 배우며, 자신의 설계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진짜 취업 TIP



양 승 욱 선배의 TIP

“막막할수록 하루 루틴부터 만들어보세요.”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 다들 비슷하게 막막함을 느껴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준비한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큰 계획부터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기 쉬워요. 먼저 하루 루틴부터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공부할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을 채운 뒤에는 자유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하루를 관리했어요. 거창한 변화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쓰는 습관입니다. 그게 쌓이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탁 민 규 선배의 TIP

“내 경험을 회사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경험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걸 해봤습니다.”에서 끝나면 조금 아쉬웁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 역량이 회사와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연결해서 말해야 해요. 경험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 안에서 배운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후배들도 자신의 경험을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언어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하 승 종 선배의 TIP

“학교 프로그램을 내 무기로 만드세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그냥 하나의 활동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잘 활용하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저에게도 효성중공업 Insight Academy가 그랬어요. 현직자 강의나 기업 맞춤형 교육을 들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보는지, 신입사원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들은 말, 현장에서 나온 사례, 내가 느낀 점을 잘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면접장에서 훨씬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돌아옵니다.



변 강 민 선배의 TIP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지원하세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특별한 무기가 없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채용은 회사의 상황, 직무의 필요, 사람과의 공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족하다고 느껴도 일단 지원해 보고, 부딪혀 보고 떨어지면 이유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다음 기회를 만드는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